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http://sri.kostat.go.kr>

2021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인의 갈등 인식과 배타성

하상응 (서강대학교)

-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국 사회 내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빈곤층과 중상층 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 노동자와 고용주 간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 갈등이 최근 특히 심각해졌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다소 완화되었다. 통념과 달리 세대 갈등 및 남녀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추세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수용 대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북한이탈주민만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조선족,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에 대한 거리감은 커지고 있다.
-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에 개방적인 다문화 포용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일민족국가로서의 결속력 저하에 대한 우려 역시 높은 수준이다.

더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권위주의 문화가 개인 간 차이 및 집단 간 차이를 존중하는 관행 형성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꾸준히 받아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저항이 생겼다. 여행, 공부, 사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한국인의 비율 또한 과거에 비해 매우 높다. 다양성에 노출되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 인해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많은 사회과학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타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된 환경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편견과 차별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내 갈등의 정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갈등 인식과 배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빈곤층과 중상층 간, 보수와 진보 간, 근로자와 고용주 간, 수도권과 지방 간, 개발과 환경보존 간, 고령층

한국 사회에서 집단 간 편견과 차별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한국이 가장 인종 다양성이 낮은 나라라는 특수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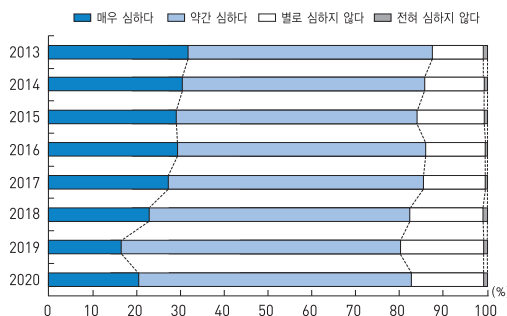


과 젊은층 간, 남성과 여성 간, 종교 간, 내국인과 외국인 간 등 9개 영역에서의 갈등 인식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한국인의 배타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 갈등 인식

먼저 한국인의 갈등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XI-11]에는 한국 사회에서 빈곤층과 중상층(중산층과 상류층)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우선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이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감을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 혹은 ‘약간 심하다’라고 답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줄곧 80%를 넘었다.

[그림 XI-11]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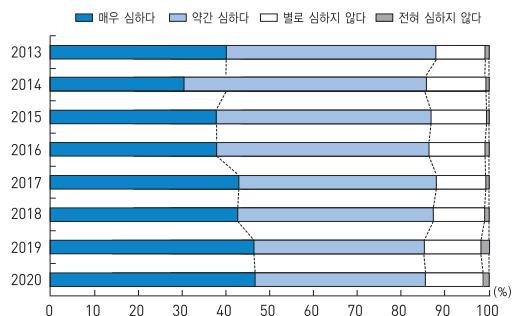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은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매우 심하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31.7%였으나, 그 비율이 2019년에는 16.6%, 2020년에는 20.4%로 눈에 띄게 줄었다. 동시에 ‘별로 심하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3년에 11.7%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19.0%, 2020년 16.4%로 늘어났다. 소득 및 자산에 근거한 경제 불평등 상황이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 차이가 연도별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통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XI-12]는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 갈등 인식 추이를 보여준다. 연도와 상관없이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심각성 인식은 최근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만 해도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그림 XI-12]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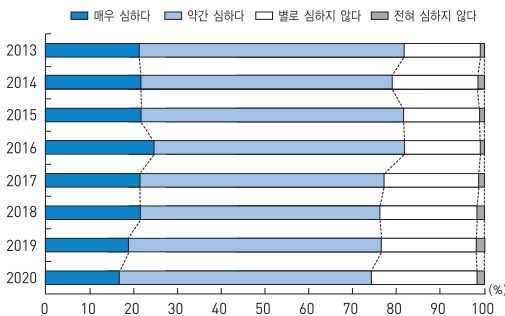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0.0%였고, 2015년에는 그 비율이 37.8%까지 내려갔으나, 2020년에는 46.6%로 급상승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갈등이 '약간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3년 47.9%에서 2020년 38.8%로 줄어 들었다. 즉,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인식의 추이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이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최근 늘어났다는 이야기이다. 정치권에서 심화되고 있는 여야 간 양극화가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그림 XI-13]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 인식에 대한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이후 줄곧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그 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완화되는 경

향을 보인다.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13년에는 21.2%였는데 2016년 24.7%로 조금 올라간 이후, 2020년에는 16.8%까지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갈등 인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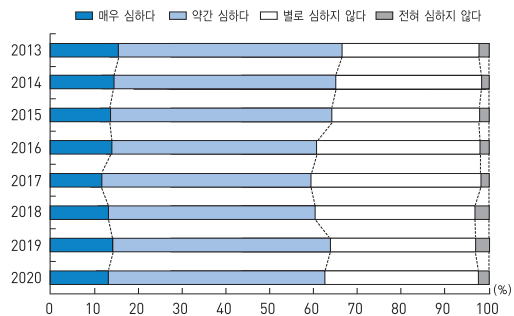
다른 집단 간 갈등에 비해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림 XI-14]를 보면 30%에서 40%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15.4%로 가장 높았고, 이후 그 비율이 줄어 2017년에는 11.6%, 2020년에는 13.1%로 변화하였다. 노동시장의 질과 다양성, 주거환경 및

[그림 XI-13]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14]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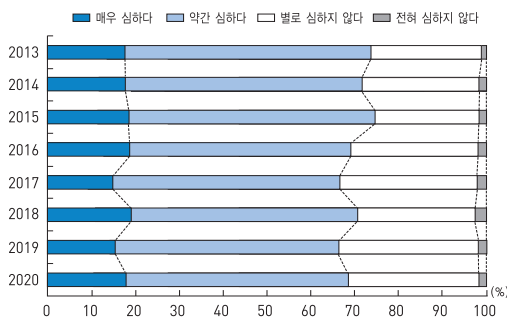
문화 환경의 질, 고등교육기관의 건전성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반영되지 않는 결과이다.

[그림 XI-15]는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2013년부터 줄곧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른 뚜렷한 패턴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3년에는 17.8%, 2017년에는 15.0%, 2018년에는 다시 19.1%, 2020년에는 17.9%로 불규칙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 문재인정부 때 탈원전 등과 같이 굵직한 환경 현안이 관심의 대상이 될 때마다 국민들과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반응이 반드시 의미 있는 태도 변화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사점을 준다.

[그림 XI-16]은 고령층과 젊은층 간 갈등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갈등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설문 응답자들이 제공해주는 정보는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지 않음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놀랍게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다루는 집단 간 갈등 인식 관련 응답들 중에서 가장 연도별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굳이 변화를 파악하자면, 미미한 차이이긴 하지만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3년 13.9%에서 2020년 11.1%로 줄어든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XI-15]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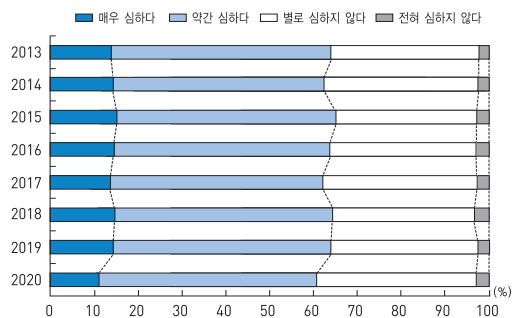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16] 고령층과 젊은층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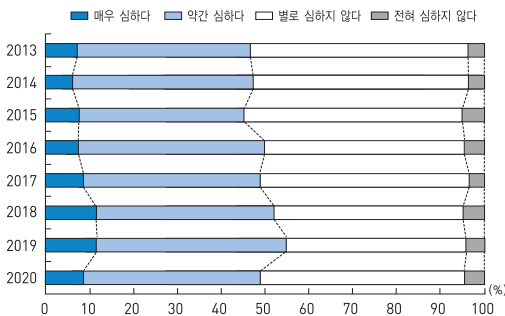
[그림 XI-17]은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최근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현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설문 결과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과반을 조금 넘고 있다. 이는 응답자의 80%가량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빈곤층과 중상층 간 혹은 보수와 진보 간 갈등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물론 최근 남성과 여성 갈등의 심각성 인식은 높아졌다. 이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2013년에는 7.2%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1.5%, 2019년에는 11.7%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2020년 들어와서 그 비율이 8.7%로 다시 낮아지는 현상 역시 주목하여야 한다. 적어도 이 결과에 따르면, 언론과 정치권에서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젠더 갈등은 일반 국민들

의 인식보다는 과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XI-18]은 종교 간 갈등 인식 정보를 담고 있다. 인종 다양성은 매우 낮지만 종교 다양성이 높은 편인 한국은 다양한 종교 집단 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종교 간 갈등을 제외하고는 제도 차원에서 종교 갈등은 매우 드문 편이었고,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종교 간 차이를 유권자 동원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간 갈등 인식에 뚜렷한 시계열적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 종교 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13년에는 14.2%였다가 2016년에는 10.4%로 줄고, 2018년에 다시 13.0%로 늘었다가 2020년 10.5%로 주는 현상을 보면 의미 있는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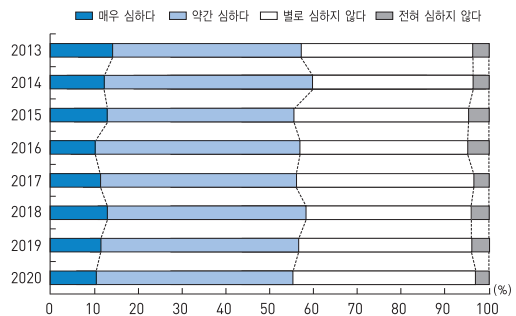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인식에 대한 정보가 [그림 XI-19]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 XI-17] 남성과 여성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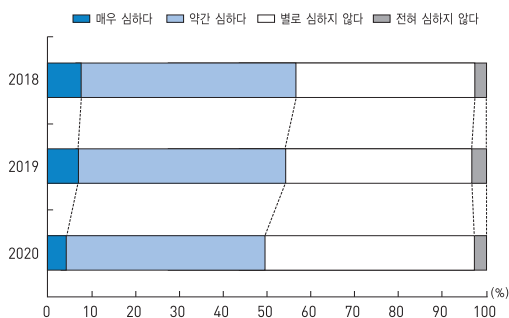
[그림 XI-18] 종교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문항은 2018년부터 설문에 포함되었는데, 지난 3년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8년 7.6%에서 2020년 4.1%로 줄어들었다. 또한 ‘약간 심하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2018년 48.9%에서 2020년 45.3%로 감소하였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국인, 특히 아시아인(혹은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와 유사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 XI-19]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8-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한국 국민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정치 이념을 둘러싼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 중요시하는 것에 비해, 세대 간 갈등 혹은 젠더 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수도

권과 지방 간 갈등,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갈등, 종교 간 갈등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 변화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상대적으로 완화된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 인식, 그리고 상대적으로 심화된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인식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그 처방을 내리는 정책을 다른 집단 갈등을 다루는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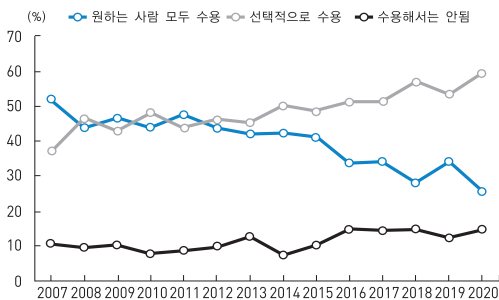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포퓰리즘 문제는 대부분 국가 정체성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자유무역의 연장선 상에서 확산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종교, 문화, 관습이 다른 이민자의 유입을 야기시켜 국가 정체성에 위협을 주게 되었다.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한때 주류의 지위에 있었던 집단이 소외되는 상황이 우파 포퓰리즘 운동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정체성에 위협을 줄 정도로 이민자 집단의 존재감이 있진 않지만,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 신화를 오랫동안 유지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주민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인들의

배타성이 정체성 위기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XI-20]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여론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XI-20]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200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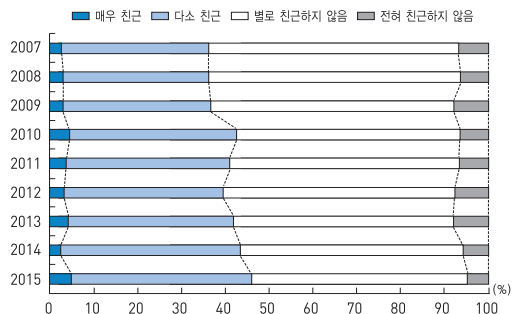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07-2009년은 만 19-64세 인구, 2010-2014년은 만 19-65세 인구, 2015년 이후는 만 19-74세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07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으로 이주를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받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그들을 모두 수용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원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6년부터는 그 비율이 40% 아래로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북한이탈주민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비율이 2014년에는 50.3%였고, 2015년에는 48.5%로 약간 하락했으나, 2016년부터는 다시 51.3%까지 올라갔고 2020년에는 59.4%가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자는 응답자의 비율도 2014년에 7.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이래 점점 늘어 2020년에는 14.8%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무조건적 수용 대신, 조건부, 선택적 수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림 XI-21]을 보면 한국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느 정도 친근함을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에는 33.5%의 응답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소 친근'하다고 응답하였는데, 2015년

[그림 XI-2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2007-2015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07-2009년은 만 19-64세 인구, 2010-2014년은 만 19-65세 인구, 2015년은 만 19-74세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에는 그 비율이 41.1%까지 올라갔다. 반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별로 친근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2007년에는 56.9%였으나 2015년에는 49.0%로 줄었다. 이는 2010년대 냉랭했던 남북 관계의 여파로 북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과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 의식조사」에서는 2017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문항의 척도를 4점에서 5점으로 바꾸고, 다른 이주민들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그림 XI-22]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다른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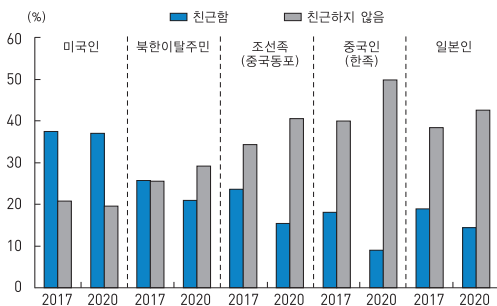
근함을 느끼는 집단은 미국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 북한이탈주민, 조선족(중국 동포)의 순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중국인(한족) 및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2017년 대비 2020년에 높아진 점을 주목할 만 하다. 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이 일본인 및 중국인에 대한 감정에 비해 눈에 띄게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동북아 외교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할만한 정보이다.

다문화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인종, 종교, 문화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다문화 포용성), 그리고 여러 민족이 섞여 살게 되면 국가의 결속력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다문화 수용성) 여부를 「통일 의식조사」를 사용하여 살펴본다.

[그림 XI-23]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진술에 찬성하는 정도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살펴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포용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종, 종교, 문화 다양성을 지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의 진술에 찬성하는 비율은 2012년에 54.7%였고, 2016년 49.8%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그림 XI-22] 이주민 출신국별 친근감, 2017, 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만 19~74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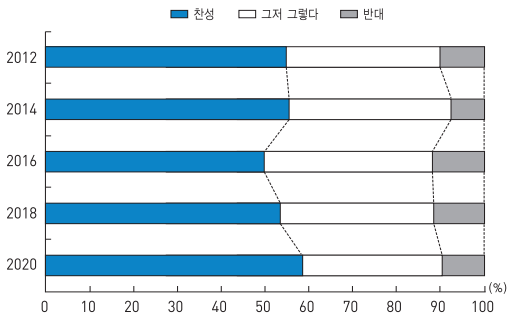
2) 설문문항은 각각의 이주민에 대해 “귀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친근’, ‘다소 친근’, ‘그저 그렇다’, ‘다소 친근하지 않음’, ‘전혀 친근하지 않음’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친근함’은 ‘매우 친근’과 ‘다소 친근’을 합한 비율이고, ‘친근하지 않음’은 ‘다소 친근하지 않음’과 ‘전혀 친근하지 않음’을 합한 비율임.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 의식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시 높아져 2020년에는 58.4%가 되었다.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2년 10.1%에서 2014년에 7.6%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대체로 1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XI-23] 다문화 공존에 대한 태도, 201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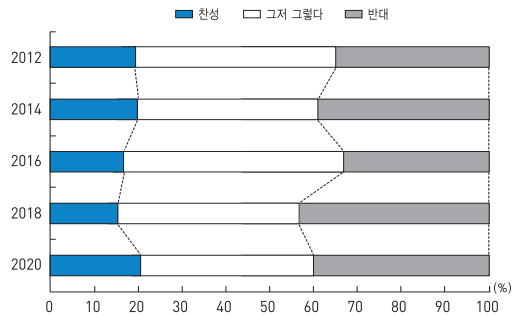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2-2014년은 만 19-65세 인구, 2015년 이후는 만 19-74세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찬성', '다소 찬성',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찬성'은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을 합한 응답률이고, '반대'는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24]는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는 진술을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추세는 [그림 XI-23]에서 제시된 것과는 반대로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다문화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은 19.4%였는데, 이후 다소 낮아지다가 2020년에는 20.7%로 약간 높아졌다. 다문화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2012년 35.0%에서 2014년 38.9%로

높아졌다가 2016년 33.0%까지 낮아졌고, 이후 다시 높아져 2020년에는 40.0%가 되었다. 이와 별도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라는 답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결과이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의견이 점점 명확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XI-24] 다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 2012-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2-2014년은 만 19-65세 인구, 2015년 이후는 만 19-74세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찬성', '다소 찬성',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그림에서는 진술문이 다문화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응답범주 '매우 반대'와 '다소 반대'의 응답률을 합쳐 '찬성' 응답률로,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의 응답률을 합쳐 '반대' 응답률로 제시하였음.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문화 포용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은 모순되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설문 문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문화 포용성은 원칙적으로 인종, 종교, 문화 차원의 공존을 의미하는 반면,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민족을 우리나라 국

민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을 다민족국가로 변화시키는 법적, 제도적 변화에 대한 반감은 커질 수도 있다. 즉,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 거주는 용납하지만, 영주권 및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행위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 집단 간 갈등 인식은 심각한 편이지만, 특히 빈곤층과 중상층 간, 보수와 진보 간, 노동자와 고용주 간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최근 더욱 심각해졌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통념과 달리 세대 갈등 및 남녀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

여지고 있고, 그 추세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공유되는 갈등 담론과 여론 간 괴리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 조건 없이 수용하는 정책에 대한 입장 대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북한이탈주민만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이다. 반면 조선족,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에 대한 거리감은 커지고 있다. 미국인에 대한 거리감은 낮은 반면,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거리감이 커지는 현상은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에 개방적인 다문화 포용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일민족국가로서의 결속력 저하에 대한 우려 역시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및 다른 문화에 대한 익숙함과 친근함은 늘어났으나, 한국을 다민족국가로 만들 수 있는 법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덜 되어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